보 도 자 료

사.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 The Federation of Disability Culture & Arts Associations of Korea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	배포일시	2026년 4월 29일
담 당 자	정효진(☎ 02-6351-5903)	이 메 일	jangyechong@fdca.or.kr
주 소	서울시 영등포구 양산로 57-5, 이노플렉스 401호		

한준호 국회의원, ‘2026 장애인문화예술축제 A+ Festival’ 대회장 위촉

- “장애는 불편함 아닌 특별함… 서로의 다름 인정하고 응원하는 사회 조성에 최선” -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이하 장예총)는 지난 27일, ‘2026 장애인문화예술축제 A+ Festival’(이하 A+ Festival)의 대회장으로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경기 고양시을)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오른쪽부터 한준호 국회의원, 장예총 신동일 상임대표

이번 위촉은 한준호 의원이 그동안 문화예술과 사회적 약자를 아우르는 현장 중심의 활동을 통해 쌓아온 두터운 신뢰를 바탕으로 성사되었다. 한 의원은 그간 국회에서 장애인과 고령자 등 소외계층의 권익 향상을 위한 정책 마련에 힘써 왔으며,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지원 체계 구축에 앞장서 온 인물로 평가받는다.

특히 한 의원은 지난 2023년 11월, ‘한국-인도 수교 50주년’을 기념해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인도 발달장애 아티스트 한국특별초대전 <아미탄쉬: 침묵의 색>을 주최하며 장애예술인의 창작 활동 지원과 사회적 인식 개선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

입법 활동 역시 주목받고 있다. 한 의원은 2023년 2월,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도시철도 무임승차 재원 확보 및 국비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어 2025년 2월에는 교통약자가 동반 보호자와 인접한 좌석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는 등 사회적 약자의 실질적인 권리 개선을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대회장으로 위촉된 한준호 의원은 “장애예술은 우리 사회가 다양성을 어떻게 수용하고 존중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라며, “장애가 단순히 ‘불편함’이 아닌 하나의 ‘특별함’으로 공유되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며 잠재력을 자유롭게 응원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A+ Festival이 장애예술인들이 창작 주체로서 당당히 자리매김하는 장이 되기를 응원한다”며, “국회 차원에서도 장애예술인의 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접근성 높은 물리적 기반 마련과 제도적 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장예총 신동일 상임대표는 “한 의원이 보여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열정은 A+ Festival이 지향하는 포용성 및 공공성과 맞닿아 있다”며, “이번 위촉을 통해 장애예술인의 창작 환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정책 논의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장예총이 주최하고 2026장애인문화예술축제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A+ Festival’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재단법인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 후원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장애인 문화예술 축제다. 2009년 시작된 이 축제는 장애인의 잠재력(Ability), 접근성(Accessibility), 역동성(Activity)을 바탕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예술(Arts)로 함께(All Together)한다는 목표를 실현해 오고 있다.

올해 A+ Festival 역시 다채로운 공연과 전시,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될 예정이며, 한준호 의원의 대회장 위촉에 따라 축제의 사회적 의미와 공공적 역할이 더욱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전화(☎ 02-6351-5903)또는 이메일(festival@fdca.or.kr)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